

## ■ 2025년도 ARKO 예술창작실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ARKO 예술창작실
- 회의일시 : (1차) 2025년 4월 30일, (2차) 2025년 5월 7일
- 회의장소 : (1차)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2차)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및 온라인(ZOOM) 동시진행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심지언, 안정주, 이경민, 정헌기, 현시원

이번 ARKO 예술창작실 1기 심의에는 국내외 역량높은 많은 작가들이 지원하였다. 먼저, 뛰어난 역량을 가진 많은 작가들을 모두 예술창작실에 초대하지 못하는 데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바이다. 아르코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예술창작실 운영 사업은 추후 개인 작가의 작업 역량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국내외 예술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국 예술 현장과 동시대 해외 미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장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2025년 1, 2기 각 기수 당 5명인 총 10명의 국내외 작가를 첫 입주 작가로 결정하였다. 선발된 작가들은 작업 활동뿐 아니라 예술창작실에서 기획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기획 전시 참여 등을 통해 아르코에서 시작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첫 입주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첫 인바운드 예술창작실 사업만큼 국내외 여러 작가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필 수 있는 치열한 심의 과정이었음을 미리 밝힌다. 레지던시에 머물 수 있는 2025년의 1기, 2기 신청 지원자의 수는 선정 대상 수인 1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예술 현장에 대한 해외 예술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 현장에서 작가에게 공공기관의 작업실 운영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이며 작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의 첫 단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를 포함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이번 서류를 통해 보여준 예술적 경험, 현재 작업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밀도가 매우 높았음을 밝힌다.

서류 심사 기준은 다음의 세 요소를 기본으로 하였다. 첫째 신청자의 활동 실적 및 성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가역량,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창작 활동계획의 충실성, 셋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발전과 국내외 예술 현장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기대효과였다. 전수검토를 통해 서류 심사에서 추려진 국내외 작가들은 모두 설치, 미디어, 회화, 디지털 기반 작업, 디자인과 리서치 기반 작업 등을 비롯하여 실험적인 여러 성향들을 고루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 신청 작가들의 경우 한국을 둘러싼 예술 현장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작업을 연결짓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눈에 띄었다. 국내 작가들의 경우에도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과 계획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작가에게 예술창작실의 활동이 유의미할 것인가를 질문하며 그외 작업 계획과 레지던시에서의 활동 계획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아르코 예술창작실에 기대하는 바를 질의했다. 해외 작가들의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세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눈에 띄었다.

아르코 예술창작실은 작가들에게 개별 작업실을 제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네트워크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주요한 비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작업적 활동을 다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작가들의 활동 계획, 새로운 환경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서 작가들의 경험과 작업 방식을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 작업이 뛰어난 작가들이 주를 이뤘으나 10명이라는 제한된 작가의 선정이니만큼 더욱 치열한 논의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예술창작실이라는 레지던시에 함께 머무는 작가들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회화와 설치, 영상 등 매체의 다양성도 고려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5개월 이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작가가 세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세밀하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총 10인의 국내외 입주작가를 선정하였다.

아르코 예술창작실이 창작과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을 하는 즐거움과 다음 세대의 실험적인 가치들이 꽃 피우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시대 한국 및 해외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뛰어난 작업들을 창작하는 주요한 본거지로서 예술 생태계 내의 상호 돌봄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심의위원명 :

심지언

(서명)

안정주

(서명)

이경민

(서명)

정헌기

(서명)

현시원

(서명)